

국가건강검진자 10명중 6명 '비정상'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6명은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이 의심돼 2차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1398만7129명 중 36.7%가 질환의심, 21.9%가 유질환자로 종합판정됐다. 비정상 판정이 58.6%에 달한 셈인데 이는 전년도 58.0%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차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사람(정상A)은 7.4%, 이상은 없지만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정상B)은 34.0%였다. 정상판정 비율은 1년 만에 42.8%에서 41.3%로 1.5%포인트 떨어졌다.

비정상 판정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올라갔다. 20대 이하의 정상 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4.0%로 나타났으나 30대 56.3%, 40대 46.5%, 50대 34.4%, 60대 24.7%, 70대 16.3%, 80대 이상 11.9% 등이었다. 70대(58.5%)와 80대 이상(62.8%)은 10명 중 6명 안팎이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2012년에 비해 정상(A+B)판정이 6.4%포인트 감소했고 질환의심 1.3%포인트, 유질환자 5.0%포인트 증가했다"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2차 검진대상은 총 50만8838명이었는데 19만7801명이 당뇨병 검사, 31만1037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최종 판정비율은 당뇨병이 51.7%(10만2285명), 고혈압이 53.5%(16만6945명)로 집계됐다.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5%, 57.9%)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차 판정비율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44.2%에서 7.5%포인트, 고혈압은 49.5%에서 4.0%포인트씩 증가했다.

수검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은 검진대상 1781만8302명 가운데 1398만7129명이 받아 수검률 78.5%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2년(72.9%)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8.1%포인트(71.7%→79.8%), 영유아건강검진은 16.7%포인트(55.4%→72.1%)씩 대폭 늘었다.

암검진도 대상자 2만2658명 중 1만1411명이 마치면서 수검률이 50.4%로 집계돼 지난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2년 대비 위암은 7.1%포인트, 대장암 9.7%포인트, 간암 26.0%포인트, 유방암 5.2%포인트, 자궁경부암은 8.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건강검진 정상비율 5년새 6.4%p 감소해

흡연률 ↓ · 비만율 ↑ ...30대男 49% 비만

문진 결과 흡연율은 줄고 비만율은 늘었다.

2012년 24.7%였던 흡연율은 지난해 21.5%로 늘었는데 남성이 37.4%, 여성이 3.4%였다. 건보공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2015년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비만율은 남성 44.0%, 여성 28.9% 등으로 36.9%를 기록하면서 5년 전(32.6%)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30대 남성은 절반에 가까운 49.0%가 비만이었으며 여성 중에선 70대가 비만율이 42.5%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9%, 높은 혈압은 43.6%, 높은 혈당 38.3%, 고중성지방혈증 32.2%,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 낮은 H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았다.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6%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73.2%로 나타났다.

뉴스스



어떤 곳감이 좋을까? 10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꽃감 경매장에서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지리산 함양 꽃감 초매식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관 생활안전출동 37% '별집제거'...동물포획도 증가

소방관 생활안전사고 출동 중 별집제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의 구조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안전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약 42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현장 소방공무원 1인당 출동건수도 2015년 6.0회, 2016년 8.4회, 지난해 8.9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사고원인별로는 지난해 별집제거(약 15만9000건)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반면 동물포획과 잠금장치 개방은 각각 20.8%, 32.7% 증가했다.

별집제거 출동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37.5%)을 차지했다. 동물포획은 개, 고양이, 조류, 고라니, 뱀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 고양이가 동물포획 관련 전체 출동의 70% 이상으로 분석됐다.

잠금장치 개방은 문 개방, 신변확인, 차량잠금장치 개방 등의 순이었다. 문 개방은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약 10만 9000건)가 출동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약 6만1000건), 경남(약 3만8000건), 경북(약 2만9000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인구 1만명당으로는 강원(약 137건), 전남(115건), 경남(114건), 세종(113건) 순으로 많았다. 인구 1만명당 사고원인별 출동의 경우 별집제거는 강원, 동물포획 중 개는 충남, 고양이는 부산, 조류는 경기, 고라니는 세종, 뱀은 제주, 멧돼지는 경남이, 잠금장치 개방 중 문 개방은 인천·제주가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매년 총 출동의 50% 이상이 7~9월에 집중되고 있다. 출동 사유가 가장 많은 별집제거(7~9월 집중)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뉴스스

인도 힌두교도 종교갈등 지역 사원 건립 촉구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자 수천 명이 종교 갈등 지역인 북부 아요디아에 힌두 사원 건립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9일(현지시간) BBC방송 및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힌두교 승려 및 힌두 민족주의 단체 지지자 수천 명(주최측 추산 20만명)은 이날 수도 뉴델리에 모여, 아요디아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 폐허 자리에 힌두 사원을 건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아요디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갈등을 빚는 지역이다. 힌두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라마 신(神)이 아요디아에서 탄생했다고 믿고 있다.

당초 이 지역에는 1528년 건설된 이슬람 모스크가 있었지만, 힌두 우익 단체들은 1992년 이 모스크를 때려 부숴냈다. 이 사건으로 힌두와 무슬림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당시 인도 전역에서 20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힌두교도들은 모스크가 세워지기 전 아요디아에는 라마신 사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총선에서 힌두 민족주의자의 지지를 얻고 승리하면서 과격 힌두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美 남부 폭설·혹한으로 30만세대 정전

미국 남부지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폭설과 폭설, 진눈깨비와 겨울 눈폭풍이 몰려오면서 9일(현지시간) 하루동안 고속도로 결빙, 정전사태, 폭설과 추위로 수십만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

동부 남쪽인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가 9일 오후 기준 300m 이상의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일부, 테네시주에 걸쳐서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각 지역의 고속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가 좁을 있었고, 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쏟아진 눈에 갇히거나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차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속출했다. 현지 경찰은 일요일 오후에만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 수 백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는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강물 속에 빠졌다면서 모든 주민들은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있을 것과 공영히 구조대의 생명만 위협하게 만드는 혹한 속의 차량 운전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했다.

그 밖의 지역 주지사들도 남부 지역을 넓은 띠로 가로 지르는 폭풍설에 대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민들은 외출과 운전을 하지 말고 비상 식량등을 확보하도록 경고했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는 10일자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미 국립기상청은 토요일인 8일 저녁에 시작된 눈이 "상당 기간동안 계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 북서부와 버지니아에서는 10일 까지도 심한 폭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 지역에서는 무려 30만명이 정전 신고를 해왔고 앨라배미주, 조지아주, 테네시주와 버지니아 일부에서도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6번째로 분비는 살럿의 더글러스 국제공항은 9일 하루 10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아메리칸 항공이 항공기 운항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이 항공사는 해당 지역 전체의 공항 아홉 군데에 경보를 발령하고 항공편 변경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변경해 준다고 발표했다.

가자 유대인 정착촌 피습, 7명 총격 부상

가자지구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외곽에서 팔레스타인 소행으로 의심되는 기습 총격으로 7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했다.

적십자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구호기관 마겐 데이브 아담(Magen David Adom)의 구조대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서안 북부지역의 정착촌 오프라마를 어귀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서 서 있다가 총기 난사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 21세의 여성은 상체에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다고 구조대는 말했다. 다른 부상자 가운데에는 16세의 여학생도 있지만 경상을 입었다.

이스라엘 군은 이번 사건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승용차에서 갑자기 총이 발사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군이 즉시 응사했으며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